

勞 動 經 濟 論 集  
 第23卷(1), 2000. 6. pp. 1~25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反復失業과 失業의 長期化

이 병 회\*

### ◀抄 錄▶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패널화하여, 경제위기를 전후한 실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을 경유한 노동이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경험자의 3분의 1은 2회 이상의 실업상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실업(recurrent unemployment)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실업 경험자는 사실상의 장기실업상태를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도화된 사회적 보호수준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단기간의 취업과 실업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반복실업이 실업 장기화의 주요한 현상임을 시사하고 있다.

### I. 머리말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우리 노동시장은 대량실업이라는 유례없는 실업의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1999년 2월 정점에 이르렀던 실업규모가 경기의 빠른 회복세에 의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더라도 경제위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복귀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대량실업 시기 실업의 동태적인 성격에 대한 분석은 우리 노동시장의 재구축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실업구조의 변화가 통상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 1999년 2월 이후 실업률의 꾸준한 하락추세에 의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해 실업상태로 유입하는 규모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업유입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실업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대량실업 시기에 실업상태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 또한 특이하다. 1998년의 경제성장이 -5.8%를 기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실업탈출률은 노동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실업률이 한 번 상승하고 난 뒤에는 이후에 하락하더라도 장기실업률은 상당기간 하락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경험(OECD, 1987; 신동균 1999a)과는 달리 1999년 2월 이후 실업률과 함께 장기실업자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넷째, 주변 노동력계층의 실업기간이 핵심노동력 계층보다 짧게 나타나는 사실도 일반적인 기대와는 다르다.

이러한 새로운 특징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사실들(empirical facts)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실업상태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노동시장구조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면에는 실업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반복실업(recurrent unemployment)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하의 제II장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자료들을 설명하고, 제III장에서는 실업의 충격(shock)과 실업의 지속(persistence)으로 구분하여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전개된 실업구조의 변화를 개관할 것이다.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자 우리 나라 실업구조의 중요한 특징으로 단기간의 실업상태를 빈번하게 경험하는 반복실업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실업구조 변화의 주요한 발견을 요약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資料의 構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업구조를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제위기를 전후한 월간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분석 목적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 월간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제III장의 실업의 지속 측면에서 장기실업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둘째, 이웃하는 월별로 개인별 대응을 통해 연결패널 자료(month-to-month matched data)를 구성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월간 연결패널」이라고 부른다. 주로 제III장의 실업

의 충격 측면에서 노동력 상태간 이동을 분석할 때 사용한다.

노동력 상태간 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이한 두 시점에 걸쳐 동일한 개인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구성한 후 5년간 조사하며, 단지 누락된 표본만큼 조사 때마다 보충하므로 개인별 연결 패널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1998년에 새로운 표본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1997년 12월과 1998년 1월의 자료는 서로 단절이 된다.

「월간 연결패널」을 구성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가구를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를 이용할 수 있었던 1999년 6월 이후에 대해서는 원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각 개인의 조사구, 구역, 거처, 성, 출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이를 개인식별번호로 삼아(식별률 100%) 월별로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각 개인의 연결패널 자료를 만들었다. ② 가구일련번호를 이용할 수 없었던 1999년 5월까지의 자료는 김대일(1997), 신동균(1999b)의 방법에 따라 가구주 및 배우자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가구식별번호를 만들어 가구별 패널을 구성한 뒤, 가구 구성원별로는 본인의 생년월일과 가구주와의 관계를 토대로 개인식별번호를 구성하였다(식별률 97~98%). 그리고 개인식별번호를 월별로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각 개인의 연결패널 자료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6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의 개인 연결패널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월별로 표본구성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며, 같은 개인에 대해서도 가중치는 월마다 다르기 때문에 월별 노동력 이동규모를 모집단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웃하는 월별의 평균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식별된 사람들에게는 식별된 사람들의 노동력 상태 이동패턴을 그대로 적용하여 모집단으로 복원하였다.

셋째, 분석대상 전체 기간을 패널로 연결한 자료로서, 이하에서는 「전체 연결패널」이라고 부른다. 일정한 기간 동안 동일인이 복수의 실업(multiple unemployment spells)을 경험하는 반복실업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웃하는 월별로 개인 자료를 연결한 앞서의 패널 자료와는 달리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자료(longitudinal data)가 필요하다. 또한 실업상태를 되풀이 경험하는 반복적 실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간의 장기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동일한 개인을 추적하는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전의 실업구조와 비교하기 위하여 계절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의 추적 자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sup>1)</sup>.

1)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추적 기간의 장단에 따라 반복실업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추적 기간을 더 늘릴수록 실업 경험자 가운데 반복실업 경험자의 비중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추적 기간의 자의성을 피하기 위해 경제위기 전후의 패널을 18개월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전체 연결패널」을 구성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96.1~1997.6 전체 연결패널」은 앞서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가구·개인식별번호를 구성하되 월별로 순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에 대하여 18개월에 걸친 추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1998.1~1999.6 전체 연결패널」은 가구일련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1998년 6월 이후의 자료는 원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각 개인의 조사구번호, 구역, 거처, 성, 출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이를 개인식별번호(방법 1)로 삼고, 별도로 가구일련번호를 이용할 수 없었을 때 사용하였던 가구식별번호와 개인식별번호(방법 2)를 구성하여, 1998년 6월 이후 자료에 대해 방법 2에 의한 개인식별번호와 대응된 방법 1에 의한 개인식별번호를 이전의 자료에 대하여 소급함으로써 개인별 추적 자료를 구성하였다.

〈표 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와 「전체 연결패널」 자료의 비교

(단위 : 명, %)

		1996. 1~1997. 6		1998.1~1999. 6	
		원자료	전체 연결패널	원자료	전체 연결패널
취업		49,239	29,127	38,828	22,280
실업		1,084	422	2,801	1,201
비경활		32,208	17,046	28,388	14,928
전체 (대응률)		82,532	46,596 (56.5)	70,017	38,409 (54.9)
실업률		2.2	1.4	6.7	5.1
성	남자	47.0	46.0	47.2	45.7
	여자	53.0	54.0	52.8	54.3
연령	15~19	11.7	8.4	11.2	9.8
	20~24	9.9	6.3	8.4	6.3
	25~29	11.3	8.0	11.2	8.3
	30~39	22.1	21.0	22.7	22.6
	40~49	17.2	21.0	18.2	20.2
	50~59	12.9	16.5	12.8	15.3
	60~	14.8	18.9	15.5	17.5
학력	초졸이하	25.6	30.0	23.9	29.6
	중졸	21.0	21.2	19.5	20.0
	고졸	39.1	35.2	40.0	36.4
	전문대졸 이상	14.4	13.6	16.5	14.0

「전체 연결패널」은 중도에 표본에서 누락되거나 새로 표본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관측치수는 감소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1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적된 표본 수는 모집단의 55% 내외에 불과하다<sup>2)</sup>. 한편 추적이 가능한 인구만을 대상으로 표본이 구성되므로, 노동시장 활동상황의 차이에 의해 집단별로 표본탈락률이 다르다. <표 1>에서 보듯이 모집단과 비교하여 추적 자료는 여성, 40대 이상의 중고령층, 저학력층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실업자의 표본탈락률이 높아서 「전체 연결패널」의 실업률은 원자료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업 규모나 반복실업 규모를 과소 측정하는 한계가 있다<sup>3)</sup>. 따라서 「전체 연결패널」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모집단으로 복원하기 위한)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았다.

### Ⅲ. 失業構造의 變化

#### 1. 빈번한 실업의 유입과 탈출

실업의 동태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실업상태를 중심으로 실업으로의 유입과 실업에서의 탈출을 살펴보자. <표 2>는 실업상태를 중심으로 유입 및 탈출 규모를 월 평균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실업 유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매월 실업자 풀로 유입하는 규모는 1997년 175천명에서 1998년 510천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1999년에는 약간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 유입률은 1998년 2.4%, 1999년 2.3%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1]을 보면, 1999년 2월 정점에 이르렀던 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실업 유입률은 다소 하락하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1% 미만에 머무르던 실업 유입률이 현재 2%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하고 있다. 2%대의 실업 유입률은 Layard et al.(1991 : 222)에서 제시된 고실업 유입률 국가인 미국(1988년) 2.2%, 캐나다(1988년) 2.6%와 유사한 수준으로서 실업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들과 비견된다<sup>4)</sup>.

2)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탈락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대일(1997)이 구성한 연결 패널자료에서도 연평균 표본탈락률은 34%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3) 미국에서 CPS로 연결 패널자료를 만들 때도 표본탈락되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고 보고된다(Barkume and Horvath, 1995).

〈표 2〉 실업의 유입 및 탈출 추이(월평균)

(단위 : 천명, %)

	1996	1997	1998	1999 상반기
실업 유입	133(100.0)	175(100.0)	510(100.0)	497(100.0)
(실업유입률)	0.6	0.8	2.4	2.3
취업에서(eu)	87( 65.4)	105( 60.0)	297( 58.2)	266( 53.5)
비경제활에서(nu)	46( 34.6)	70( 40.0)	213( 41.8)	231( 46.5)
실업 탈출	132(100.0)	175(100.0)	450(100.0)	575(100.0)
(실업탈출률)	33.0	33.3	31.9	35.7
취업으로(ue)	111( 84.1)	136( 77.7)	300( 66.7)	392( 68.2)
비경제활으로(un)	21( 15.9)	39( 22.3)	150( 33.3)	183( 31.8)

주 : 실업유입률 = 실업유입자 / 전월 경제활동인구

실업탈출률 = 실업탈출자 / 전월 실업자

자료 : 「월간 연결패널」.

한편 실업으로의 유입 경로를 보면, 취업상태에서 실직한 규모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규모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실업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으로 유입함에 따른 공급 증가(supply pressure)가 아니라 수요의 감소(demand shock)와 고용조정에 의한 대량의 일자리 감소(job destruction)에 기인함을 의미한다.

반면 실업을 탈출하는 규모 또한 동시에 증가하였다. 경제위기 직후 노동수요의 격감에도 불구하고 실업탈출 규모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탈출자 가운데 취업으로의 탈출 비중이 1997년의 77.7%보다는 낮지만 1998년 66.7%, 1999년 상반기 68.2%으로 재취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신속하게 재취업한 실업탈출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실업자의 재취업시 임시·일용직 등의 비정규 노동자가 무려 80%에 육박함으로써 취업의 질적 구조가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강조해 둔다.

이제 실업유입 규모와 실업탈출 규모를 비교하면, 실업으로의 유입과 탈출 규모가 거의 차이가 없었던 1997년과는 달리 1998년에는 실업유입 규모가 실업탈출 규모를 상회하여 실업자 증가로 나타났으며, 1999년 상반기 들어서서는 실업탈출 규모가 실업유입

- 4) OECD가 계산한 실업유입률(=실업유입자/(생산가능인구-실업자))로 측정하면, 우리 나라의 실업유입률은 1998년 1.5%, 1999년 상반기에 1.5%이다. OECD 회원국의 1996년 실업유입률과 비교하면, 캐나다 2.2%, 미국 1.6%보다는 낮지만, 영국 0.7%, 독일 0.5%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다. OECD(1999) 참조.

규모를 상회함으로써 실업률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러나 1999년 상반기에 실업탈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실업유입 규모는 큰 변동이 없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표 3>은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의 세 가지 노동력상태간의 노동이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각 노동력 상태를 지속하는 규모를 보면, 취업상태를 유지(ee)하는 규모나 비중은 대폭 감소한 반면, 실업상태(uu)나 비경제활동상태(nn)를 지속하는 규모나 비중은 증가함으로써 노동수요의 감소에 따른 일자리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력상태간의 이동을 살펴보자. 흔히 실업의 원인과 관련하여 노동력상태간의 순(net)이동 규모가 사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취업과 실업간의 노동력 이동을 보면, 1998년 전체적으로 실업자의 취업(ue)이 실직실업자(eu)의 규모를 상회하여 실업 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의외의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sup>5)</sup>. 반면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노동력 이동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비경제활동상태로 탈락하는 규모(un)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을 시작 혹은 재개하는 규모(nu)가 상회함으로써 실업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sup>6)</sup>. 이처럼 순(net)개념의 노동력 이동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규모의 급속한 증가는 대량의 실직보다는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취업에서 실업으로 유입하는 실직 규모가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실업으로 진입하는 규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직자가 '일자리가 없어서' 등의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비경제활동상태로 탈락하였다가 다시 노동시장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는 단순히 부가노동자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자가 취업으로 탈출하는 규모의 증대에 따라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순유입이 감소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여전히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의 실직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 이동의 총(gross)규모를 보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간의 노동 이동성이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월평균 노동력상태 이동의 총규모가 1997년 1,228천명에서 1998년 2,016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9년 상반기에도

- 
- 5) 월별로 보면, 1998년 상반기에는 취업에서 실업상태로 이동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실직실업자의 규모가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한 규모를 압도함으로써 실업자 규모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왔으나, 1998년 하반기 이후 실업자의 취업으로의 탈출 규모가 실직실업자 증가 규모를 상회하여 실업률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 6) 그러나 실망실업에 따른 비경제활동상태는 공식적인 실업자로 포함되지는 않으나, 사실상 실업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98년 12월 현재 취업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13.0%에 이른다.

2,271천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에 대비한 노동력 상태간 이동률은 1997년 3.5%에서 1998년 5.7%, 1999년 상반기 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이동의 총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노동력 이동상태에서 취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1998년 52.4%, 1999년 상반기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1997년 71.5%에 비하면 크게 하락한 것이 주목된다. 대신 경제위기 이후에는 취업과 실업 사이,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즉, 경제위기 이후 주요한 특징으로서 실업을 경유한 노동 이동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3〉 노동력 이동 추이(유출입 월평균)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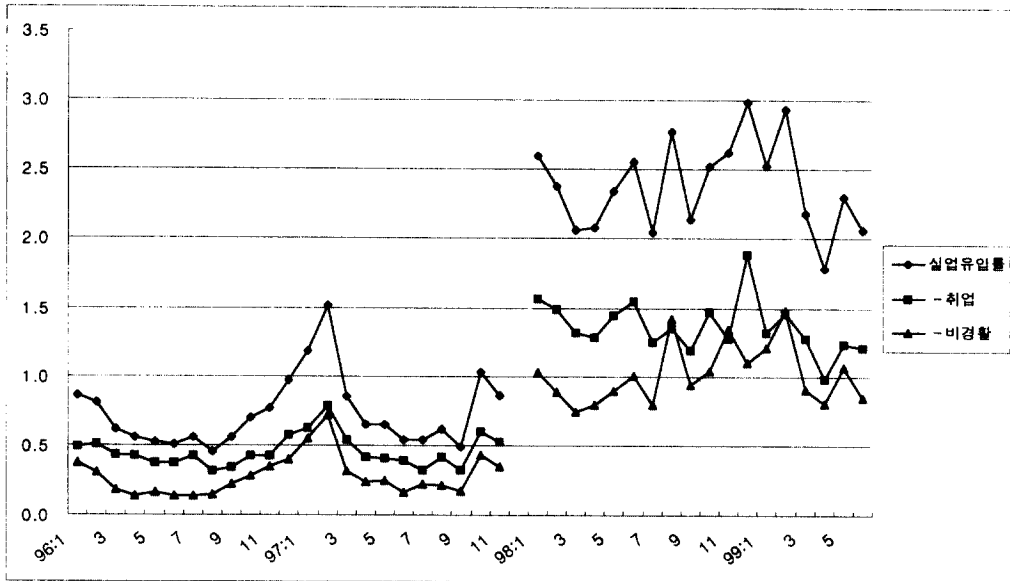
	1996	1997	1998	1999 상반기
취업 → 취업(ee)	20,337( 59.3)	20,597( 59.1)	19,260( 54.5)	18,871( 52.9)
취업 → 실업(eu)	87( 0.3)	105( 0.3)	297( 0.8)	266( 0.7)
취업 → 비경제활동(en)	399( 1.2)	426( 1.2)	519( 1.5)	493( 1.4)
실업 → 취업(ue)	111( 0.3)	136( 0.4)	300( 0.8)	392( 1.1)
실업 → 실업(uu)	270( 0.8)	351( 1.0)	958( 2.7)	1,037( 2.9)
실업 → 비경제활동(un)	21( 0.1)	39( 0.1)	150( 0.4)	183( 0.5)
비경제활동 → 취업(ne)	476( 1.4)	452( 1.3)	537( 1.5)	706( 2.0)
비경제활동 → 실업(nu)	46( 0.1)	70( 0.2)	213( 0.6)	231( 0.6)
비경제활동 → 비경제활동(nn)	12,538( 36.6)	12,666( 36.4)	13,129( 37.1)	13,485( 37.8)
계	34,286(100.0)	34,842(100.0)	35,362(100.0)	35,665(100.0)
취업 ↔ 실업	198( 17.4)	241( 19.6)	597( 29.6)	658( 29.1)
실업 ↔ 비경제활동	67( 5.9)	109( 8.9)	363( 18.0)	414( 18.1)
비경제활동 ↔ 취업	875( 76.8)	878( 71.5)	1,056( 52.4)	1,199( 52.9)
총 노동력 이동 규모	1,140(100.0)	1,228(100.0)	2,016(100.0)	2,271(100.0)

자료 : 「월간 연결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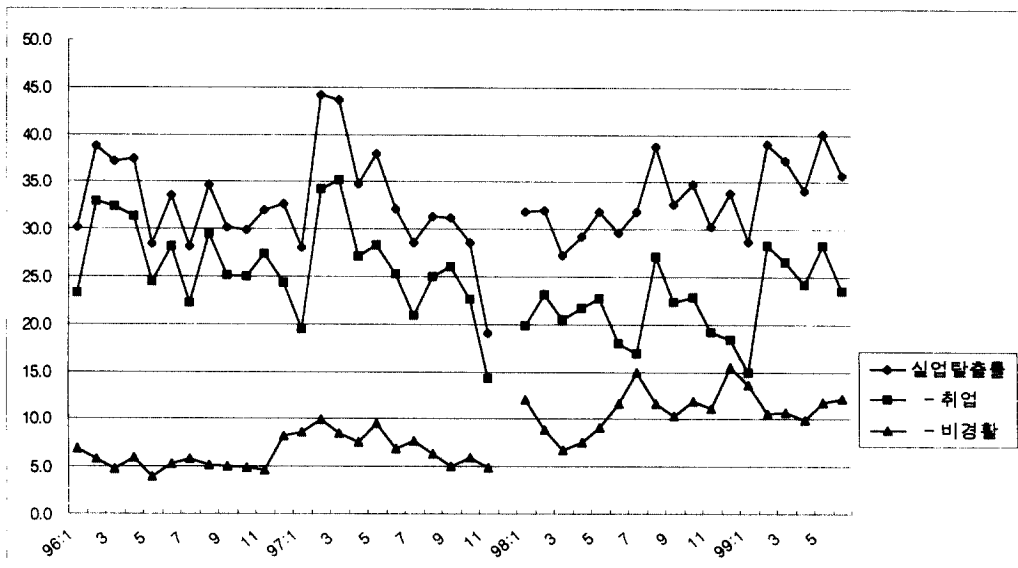
[그림 1] 실업유입률 추이

(단위 : %)



[그림 2] 실업탈출률 추이

(단위 : %)



## 2. 실업의 장기화

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실업의 충격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단기 실업은 장기실업에 비해 실업의 충격이 덜 심각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는 일정한 시점에서 연속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표 4>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구직활동기간'으로 측정한 실업기간과 장기실업률이 제시되어 있다.

장기실업의 추세를 보면, 경제위기 이후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일정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하락하지만 그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1997년의 88천명에서 1998년 214천명, 1999년 상반기에 303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업기간은 1999년 상반기에 3.83개월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1999년 상반기 들어 하락하면서 실업의 장기화 추세는 꺾이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규모는 1999년 1월 342천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6월에 282천명으로 하락하였다. 연속적인 실업상태로 정의되는 장기실업의 측정은 실망실업에 따른 비경제활동상태를 배제하므로 한계가 있지만,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실업의 장기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지는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은 1999년 상반기에 19.0%로서 OECD의 평균 장기실업률 47.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 4> 장기실업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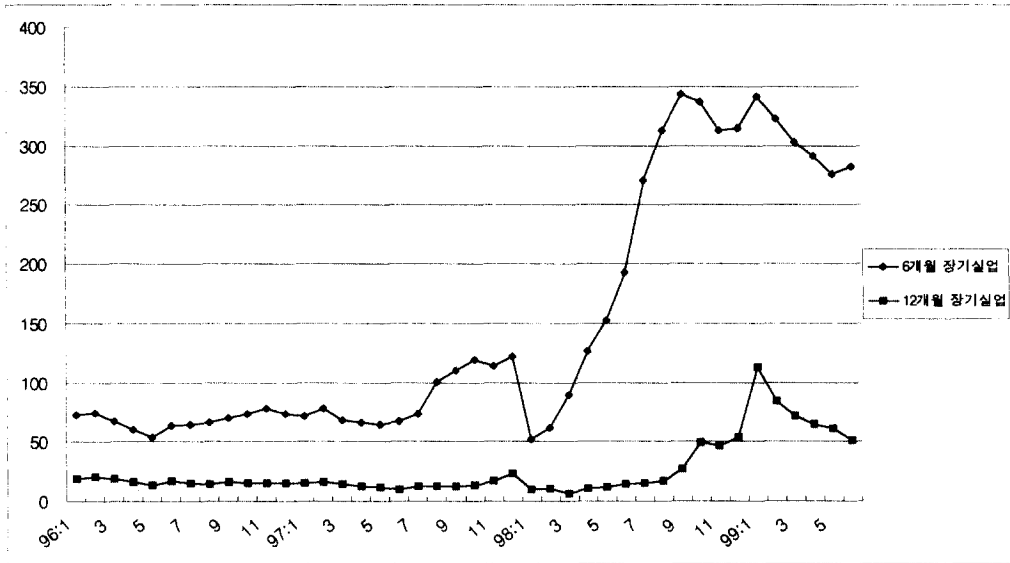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한국				미국 (1998)	영국 (1998)	독일 (1998)	프랑스 (1998)	일본 (1998)	OECD (1998)
	1996	1997	1998	1999상						
전체 실업자	426	556	1,461	1,592						
(실업기간)	3.29	3.18	3.14	3.83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68	88	214	303						
(장기실업률)	16.0	15.8	14.7	19.0	14.1	48.0	69.2	64.2	39.0	47.8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16	14	23	74						
(초장기실업률)	3.9	2.6	1.6	4.7	8.0	33.1	55.2	44.1	20.3	3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월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그림 3] 월별 장기실업자 규모의 변동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월.

한편 장기실업자의 구성을 실업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볼 수 있다. <표 5>를 보면, 1999년 상반기에 남자의 평균 실업기간은 4.1개월로 여성의 3.2개월보다 길고,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의 비중 또한 남성이 21.4%로 여성의 14.1%보다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의 실업기간이 4.4개월로 저학력 실업자에 비하여 현저히 길 뿐만 아니라 장기실업률 또한 현저히 높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59세의 중장년층의 실업기간이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길게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가구주의 실업기간과 장기실업률이 가장 크다.

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직업별로는 전문가의 실업기간과 장기실업률이 가장 높으며,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사무직, 장치 및 기계조직원 및 조립원의 실업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의 장기실업 비중이 높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직과 고용주의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상의 장기실업자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중심노동력 계층의 실업이 주변노동력 계층에 비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학력·저연령의 주변노동력 계층은 실업을 경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기간은 오히려 짧게 나타난다. 저학력·저연령 계층의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하므로 실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표 5〉 실업자 특성별 평균실업기간 및 장기실업률(1999년 상반기)

(단위 : 개월, 천명, %)

		실업 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실업 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전체 실업자〉				〈1년 미만 전직실업자〉				
성	남 자	4.12	230(21.4)	직업	관리직	3.75	4(21.8)	
	여 자	3.24	73(14.1)		전문직	4.87	5(22.9)	
학 령	초졸 이하	3.14	26(14.5)		준전문기술직	3.32	16(14.7)	
	중 졸	3.64	45(17.1)		사무직	3.77	26(20.3)	
	고 졸	3.82	156(18.5)		서비스판매직	3.26	42(14.3)	
	전문대 이상	4.41	76(24.6)		농어업숙련직	3.16	2(14.5)	
연 령	15~19	3.22	9(9.0)		기능원	3.38	44(16.5)	
	20~24	3.29	35(14.3)		장치조작조립원	3.73	23(20.2)	
	25~29	3.90	54(20.1)		단순노무직	3.10	32(11.5)	
	30~39	4.11	85(21.1)		산업	농림어업	3.06	3(12.2)
	40~49	4.00	70(21.4)			광 업	2.61	0(7.6)
	50~59	4.08	43(22.3)			제조업	3.82	45(19.9)
	60~	3.01	7(12.4)			전기·가스·수도업	3.80	0(18.0)
가구주 관 계	가구주	3.96	146(20.5)		건설업	3.30	42(15.2)	
	배우자	3.34	41(15.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44	60(15.8)		
	기 타	3.89	115(18.8)	운수·창고·통신업	3.43	9(18.0)		
전 직 유 무	신 규	3.85	20(17.3)	금융·보험·부동산업	4.00	19(19.4)		
	전 직	3.83	283(19.2)	개인및공공서비스업	2.55	14(7.9)		
	1년 미만	3.38	193(15.6)	지위	상용직	4.36	49(24.2)	
	1년 이상	6.14	90(38.1)		임시직	3.25	59(15.1)	
일용직					2.98	52(11.6)		
고용주					4.15	15(25.7)		
				자영자	3.49	16(13.7)		
				무급가족종사자	2.63	2(8.1)		

주 : 괄호 안은 전체 실업자 중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장기실업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월.

## IV. 反復失業의 擴大

### 1. 反復失業의 규모

앞서 살펴본 실업구조의 변화를 개관하면, 실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도 실업상태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고실업 유입-고실업 탈출-단기실업'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나라 실업구조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 나라 실업자들의 실업에서의 탈출과 재취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주변노동력 계층의 재취업 속도가 왜 빠른가,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업으로의 유입이 크다고 할지라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상태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실업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단기실업의 경우 실업위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실업상태를 되풀이 경험하는 반복 실업 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실업 발생이 빈발하고 노동력상태의 이동이 활발하며, 실업기간이 단기적인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실업을 상당수의 실업자가 경험하고 있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일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전체 연결패널」을 이용하여 실업발생횟수(unemployment spell)와 실업경험(unemployment experience)을 별도로 측정하였다. 실업경험자는 여러 차례 실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6>에서 관찰기간인 18개월 동안 발생한 실업횟수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인 실업발생률은 경제위기 이전의 9.2%에 비하여 경제위기 이후 30.0%로 급증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한 달이라도 실업을 경험하는 인구의 비중인 실업경험률도 7.6%에서 21.1%로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충격이 매우 광범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실업경험자는 4,944명인 데 비해 실업이 발생한 횟수는 7,037건으로 나타나, 동일인이 여러 차례 실업을 경험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6〉 실업발생횟수 및 실업경험자

(단위 : 명, 건, %)

	1996. 1~1997. 6	1998. 1~1999. 6
취업	29,128(62.5)	22,280(58.0)
실업	432(0.9)	1,201(3.1)
비경활	17,036(36.6)	14,928(38.9)
15세이상 인구	46,596(100.0)	38,409(100.0)
(실업률)	1.5	5.1
실업발생횟수	2,711	7,037
(실업발생률)	9.2	30.0
실업경험자	2,261	4,944
(실업경험률)	7.6	21.1

주 : 실업발생률 = (실업발생횟수 / 경제활동인구) × 100.

실업경험률 = (실업경험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전체 연결패널」.

이제 구체적으로 반복실업의 규모를 살펴보자. <표 7>은 실업빈도별 실업경험자와 실업발생횟수를 제시한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18개월 동안 2회 이상의 실업을 경험한 반복실업 경험자는 1,564명으로, 전체 실업경험자 4,944명의 31.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경제위기 이전의 16.6%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반복실업 경험자의 18개월 동안의 실업경험횟수는 대체로 2~3회로 나타난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18개월 동안 발생한 실업의 총횟수 가운데 2회 이상의 반복실업 경험에 의한 비중은 무려 52.0%에 이른다.

〈표 7〉 반복실업의 규모

(단위 : 명, 건, %)

	실업 빈도	1996. 1~1997. 6		1998. 1~1999. 6	
		실업경험자	실업발생횟수	실업경험자	실업발생횟수
전체		2,261(100.0)	2,711(100.0)	4,944(100.0)	7,037(100.0)
1회 실업	1	1,885( 83.4)	1,885( 69.5)	3,380( 68.4)	3,380( 48.0)
반복실업	2	311( 13.8)	622( 22.9)	1,155( 23.4)	2,310( 32.8)
	3	56( 2.5)	168( 6.2)	311( 6.3)	933( 13.3)
	4	9( 0.4)	36( 1.3)	82( 1.7)	328( 4.7)
	5			12( 0.2)	60( 0.9)
	6			3( 0.1)	18( 0.3)
	8			1( 0.0)	8( 0.1)
	소계		376( 16.6)	826( 30.5)	1,564( 31.6)

자료 : 「전체 연결패널」.

실업자 가운데 반복실업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31.6%를 1998. 1~1999. 6의 평균 실업자 1,505천명에 곱하면 반복실업 경험자는 476천명에 이르러,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244천명의 배에 이르는 규모로 환산될 수 있다. 실업자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실업을 경험하는 비중은 무려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수의 실업자가 실업상태를 되풀이 경험하는 반복적인 실업 문제가 우리 나라 실업구조의 중요한 특징임을 말해 준다.

## 2. 반복실업자의 인적 특성

반복실업 경험자의 인적특성을 <표 8>을 통해 살펴보면, 1회 실업경험자에 비해 남성, 30대 이상,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 가구주의 비중이 높다.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반복실업 경험자들의 구성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연령계층별로는 경제위기 이전에 청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경제위기 이후 40대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학력계층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경제위기 이전에는 미혼자녀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경제위기 이후 가구주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처럼 반복적인 실업 경험은 실업의 부담이 높은 남성, 가구주나 고연령·저학력의 주변노동력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발견은 앞서 주변노동력 계층의 장기실업 비중이 낮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즉, 실업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실업의 지속을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은 연속적인 장기실업 상태에 머무르기보다는 불안정한 일자리나마 신속하게 재취업에 나서고, 실업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반복실업과 노동력상태의 이동

실업상태를 두 차례 이상 경험하는 반복적인 실업경험자는 취업과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를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9>를 통해 반복실업 경험 여부에 따라 월별 노동력상태간의 이행확률을 살펴보자.

반복실업 경험자는 전체 노동력인구와 1회 실업경험자에 비해 취업정착률(ee)이 크게 낮은 반면, 취업상태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eu)은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반복실업 경험자의 취업정착률은 하락한 반면, 취업자의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반복실업 경험자의 실업지속률(uu)은 1회 실업경험자에 비해 낮은 반면, 실업상태에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ue)은 높게 나타난다. 한편 반복실업 경

〈표 8〉 실업경험자의 인적 특성

(단위 : 명, %)

		1996. 1~1997. 6		1998. 1~1999. 6	
		1회	반복	1회	반복
합 계		1,885(100.0)	376(100.0)	3,380(100.0)	1,564(100.0)
성	남 자	1,074( 57.0)	199( 52.9)	1,787( 52.9)	970( 62.0)
	여 자	811( 43.0)	177( 47.1)	1,593( 47.1)	594( 38.0)
연령	15~19	113( 6.0)	28( 7.4)	294( 8.7)	126( 8.1)
	20~24	447( 23.7)	113( 30.1)	517( 15.3)	224( 14.3)
	25~29	355( 18.8)	87( 23.1)	440( 13.0)	191( 12.2)
	30~39	403( 21.4)	62( 16.5)	897( 26.5)	371( 23.7)
	40~49	325( 17.2)	48( 12.8)	692( 20.5)	367( 23.5)
	50~59	181( 9.6)	25( 6.6)	406( 12.0)	221( 14.1)
	60~	61( 3.2)	13( 3.5)	134( 4.0)	64( 4.1)
학력	초졸 이하	204( 10.8)	32( 8.5)	455( 13.5)	273( 17.5)
	중 졸	273( 14.5)	58( 15.4)	748( 22.1)	379( 24.2)
	고 졸	920( 48.8)	192( 51.1)	1,682( 49.8)	737( 47.1)
	전문대졸 이상	488( 25.9)	94( 25.0)	495( 14.6)	175( 11.2)
가구주 관계	가구주	742( 39.4)	109( 29.0)	1,401( 41.4)	791( 50.6)
	배우자	255( 13.5)	40( 10.6)	833( 24.6)	281( 18.0)
	기 타	888( 47.1)	227( 60.4)	1,146( 33.9)	492( 31.5)

자료 : 「전체 연결패널」

험자는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 실업(nu)이나 취업(ne)으로의 이행확률은 더 큰 반면, 비경제활동상태의 지속률(mn)은 낮다.

요약하면, 반복적인 실업경험자들의 전체적인 노동이동률은 높게 나타나며, 특히 실업을 매개로 한 노동이동률이 높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복수의 실업을 경험하는 반복 실업 경험자들의 실업탈출률은 36.5%에 이르러 1회 실업경험자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으로의 탈출률이 25.4%로서 1회 실업경험자 19.3%보다 특히 높게 나타난다. 실업유입률 또한 반복실업 경험자가 16.9%로서 1회 실업경험자의 8.6%에 비해 현저하게 높으며, 취업으로부터의 유입률이 10.9%로서 1회 실업경험자의 4.7%보다 크게 높다.



〈표 9〉 반복실업과 노동력상태의 이동(월평균)

(단위 : %)

		1996. 1 ~ 1997. 6			1998. 1 ~ 1999. 6		
		전 체	실업경험자		전 체	실업경험자	
			1회	반복		1회	반복
이 행 물	취업 → 취업(ee)	97.8	91.3	80.0	96.3	88.9	75.7
	취업 → 실업(eu)	0.3	5.7	15.9	1.1	6.2	19.0
	취업 → 비경활(en)	1.9	3.0	4.1	2.6	4.9	5.3
	실업 → 취업(ue)	27.8	28.4	30.3	21.7	19.5	25.6
	실업 → 실업(uu)	65.6	65.3	62.2	66.9	69.0	63.2
	실업 → 비경활(un)	6.6	6.3	7.5	11.4	11.5	11.1
	비경활 → 취업(ne)	4.1	7.2	7.3	4.5	7.9	10.1
	비경활 → 실업(nu)	0.3	8.7	18.6	1.2	9.2	21.3
	비경활 → 비경활(nn)	95.6	84.1	74.1	94.3	82.9	68.6
실업유입률		0.5	7.2	15.1	1.8	8.6	16.9
- 취업		0.3	4.6	10.1	1.0	4.7	10.9
- 비경활		0.2	2.7	5.0	0.8	3.9	6.0
실업탈출률		33.8	34.3	37.1	32.9	30.7	36.5
- 취업		27.5	28.4	29.7	21.6	19.3	25.4
- 비경활		6.3	5.9	7.4	11.3	11.3	11.1

주 : 실업탈출률 = (실업탈출자 / 전월 실업자) × 100.

실업유입률 = (실업유입자 / 전월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전체 연결패널」

반복실업 경험자들의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상태간의 빈번한 이동은 추적기간인 18개월간에 걸친 노동력상태의 관찰기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0>을 보면, 실업의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실업의 관찰기간은 길고, 비경제활동상태의 관찰기간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반복실업 경험자의 취업 관찰기간은 8.1개월로서 1회 실업경험자의 9.5개월에 비해 짧게 나타나, 빈번한 재취업에도 불구하고 취업기간은 단기간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반복실업 경험자의 18개월간에 걸친 실업의 관찰기간은 5.9개월로서 1회 실업경험자의 3.2개월에 비해 2.7개월이 높게 나타나, 반복실업 경험자의 누적적인 실업기간이 장기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반복실업 경험자의 비경제활동 기간은 3.9개월로서 1회 실업경험자의 5.3개월에 비해 짧게 나타난다. 노동시장 귀속도(labor market attachment)가 높은 반복실업 경험자의 비경제활동기간은 사실상 실업기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0〉 18개월 동안 노동력상태의 기간

(단위 : 개월)

		1996. 1~1997. 6			1998. 1~1999. 6		
		취업	실업	비경활	취업	실업	비경활
전 체		11.3	0.2	6.6	10.4	0.6	7.0
실업 빈도	0	11.3	0.0	6.7	10.6	0.0	7.3
	1	11.2	2.6	4.2	9.5	3.2	5.3
	2	9.0	5.1	3.8	8.2	5.5	4.3
	3	9.6	5.2	3.2	8.3	6.8	2.9
	4	7.9	7.3	2.8	7.1	8.2	2.6
	5				7.0	8.4	2.6
	6				8.0	8.7	1.3
	8				4.0	10.0	4.0
실업경험자		10.8	3.1	4.1	9.1	4.1	4.9
1회 실업경험자		11.2	2.6	4.2	9.5	3.2	5.3
반복 실업경험자		9.1	5.2	3.7	8.1	5.9	3.9

자료 : 「전체 연결패널」

#### 4. 반복실업과 실업기간

실업 위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흔히 실업기간을 통해 분석된다. 특히 실업의 충격이 일부에게 집중되어 발생하는 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장기실업자의 규모로 측정된다. 그러나 실업을 경유한 노동력상태의 이동이 매우 활발한 우리 나라에서는 연속적인 실업상태에 놓인 장기실업자 규모나 평균 실업기간 지표가 실업의 장기화 문제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첫째,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것 같아 구직활동을 단념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러한 실망실업자는 사실상의 실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의 실업기간은 중단된다. 둘째, 일정한 기간 동안 실업상태를 반복하여 경험하는 자는 비록 취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실업상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실업의 확대가 경제위기 이후 실업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이며, 나아가 이러한 반복실업의 확대가 사실상 실업의 장기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의 18개월 동안 실업의 관찰기간이 아닌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에 수록되어 있는 '구직활동기간'을 통해 반복실업 경험자의 실업기간을 살펴보자<sup>7)</sup>. <표 11>을 보면, 실업발생 빈도가 많을수록 1회당 평균 실업기간은 감소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1회 실업경험자의 평균 실업기간은 3.7개월인 데 비해 반복실업 경험자의 평균 실업기간은 2.8개월로 나타난다. 그러나 누적 실업기간은 실업발생 빈도가 많을수록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실업경험자의 누적 실업기간이 3.7개월인 데 비해 반복실업 경험자의 누적 실업기간은 6.4개월로 현저히 높다. 또한 전체 실업기간의 총계에서 반복실업 경험자의 실업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위기 이후 39.4%에 이르고 있어, 반복적인 실업이 우리 실업구조의 중요한 특징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단기간의 실업상태를 되풀이하는 반복실업자들의 지표상 (평균)실업기간은 짧지만, 실제의 (누적) 실업기간은 6개월을 상회하여 사실상 장기실업자와 비슷하게 실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업으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빠르게 이루어고 실업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실업자 구성이 변화하여 실업의 충격을 분산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즉, 반복적인 실업경험자가 사실상의 장기실업상태를 경험

<표 11> 실업발생 빈도와 실업기간

(단위 : 명, 개월, %)

		1996. 1~1997. 6			1998. 1~1999. 6		
		빈도수	평균구직기간	누적구직기간	빈도수	평균구직기간	누적구직기간
실업 빈도	1	1,885	3.1	3.1( 77.3)	3,380	3.7	3.7( 60.6)
	2	311	2.8	5.6( 22.4)	1,155	3.0	6.0( 29.0)
	3	56	1.9	5.7( 2.8)	311	2.4	7.2( 7.7)
	4	9	1.8	7.0( 0.6)	82	2.2	8.8( 2.3)
	5				12	1.6	8.2( 0.3)
	6				3	1.7	9.9( 0.1)
	8				1	1.2	9.6( 0.0)
	실업자	432	3.5		1,201	3.5	
실업경험자	2,261	2.9	3.5(100.0)	4,944	3.3	4.5(100.0)	
1회 실업경험자	1,885	3.1	3.1( 75.0)	3,380	3.7	3.7( 60.6)	
반복실업경험자	376	2.6	5.6( 25.0)	1,564	2.8	6.4( 39.4)	

주 : 괄호 안은 구직활동기간의 총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전체 연결패널」.

7) <표 10>의 관찰된 실업기간은 좌우측 절단된 값이므로, 1회 실업경험자들의 실업기간이 좌우측에서 절단된 확률이 반복실업 경험자에 비해 높기 때문에 1회 실업경험자들의 평균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과소 측정된다. 또한 <표 11>에서는 미완결된 구직활동기간이므로 마찬가지로 1회 실업경험자들이 실제 실업기간이 과소 측정된다. 따라서 해저드 분석에 기초하여 기대실업기간을 추정하여야 하나,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실업 충격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실업의 장기화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연속적인 실업상태에 놓이는 장기실업 형태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취업과 단기간의 실업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반복실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 반복실업과 취업의 질적 구조

반복적인 실업경험자들은 단기간의 취업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반복실업 경험자의 종사상지위 변동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취업의 질적 구조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추적기간인 18개월 동안 전직 실업유입자가 재취업시 종사상지위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때 종사상지위의 변동은 실업유입 시점에서의 이전 종사상지위와 실업의 지속 이후 재취업시점에서의 종사상지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빈번한 실업경험을 고려하여 전직 실업유입자가 재취업으로 이동한 총(gross)횟수로 측정하였다.

<표 12>는 반복실업 경험 여부에 따라 실직 전 종사상지위와 재취업한 종사상지위를 제시한 것이다. 실직 전 종사상지위를 보면, 반복실업 경험자들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1회 실업경험자 가운데 임시·일용의 불안정취업자는 62.5%이며, 상용직의 비중이 21.7%인 데 비해 반복실업 경험자는 임시·일용의 불안정취업자가 77.5%에 이르며, 상용직의 비중은 11.9%으로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반복실업자 가운데 불안정취업자의 비중은 64.2%에서 77.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일용직의 반복실업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재취업시 종사상지위를 보면, 실업경험자의 불안정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재취업시 종사상지위의 이행확률을 제시한 <표 13>을 통해, 반복실업 경험 여부에 따른 취업의 질적 구조를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대각선 행렬은 실업경험자의 종사상지위별 정착률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실업상태를 경유한 재취업자들은 상용직의 정착률이 다른 종사상지위의 정착률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특히 반복실업 경험자의 상용직 정착률은 24.5%에 불과하며, 일용직으로의 이동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또한 1회 실업경험자에 비해 반복실업 경험자는 무급가족종사자에서 실직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타의 모든 전 종사상지위로부터 일용직으로의 이동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1회 실업경험자에 비해 반복실업 경험자는 전반적으로 비임금근로자로의 이동

률이 낮게 나타나, 반복실업 경험자들은 임금근로관계에 지속적으로 놓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반복실업 경험자는 지속적인 임금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고용이 극히 불안정한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재취업시 종사상지위의 변동

(단위 : 명, %)

	1 회		반 복	
	전 종사상지위	현 종사상지위	전 종사상지위	현 종사상지위
<b>&lt;1996.1~1997.6&gt;</b>				
상용직	323( 35.5)	193( 21.2)	107( 24.7)	87( 20.1)
임시직	304( 33.4)	378( 41.5)	195( 45.0)	200( 46.2)
일용직	132( 14.5)	152( 16.7)	83( 19.2)	99( 22.9)
고용주	57( 6.3)	57( 6.3)	15( 3.5)	25( 5.8)
자영자	83( 9.1)	112( 12.3)	31( 7.2)	18( 4.2)
무급가족종사자	12( 1.3)	19( 2.1)	2( 0.5)	4( 0.9)
전 체	911(100.0)	911(100.0)	433(100.0)	433(100.0)
<b>&lt;1998.1~1999.6&gt;</b>				
상용직	398( 21.7)	181( 9.8)	294( 11.9)	123( 5.0)
임시직	649( 35.3)	667( 36.3)	673( 27.2)	642( 25.9)
일용직	500( 27.2)	625( 34.0)	1,245( 50.3)	1,440( 58.1)
고용주	62( 3.4)	72( 3.9)	80( 3.2)	58( 2.3)
자영자	192( 10.4)	222( 12.1)	159( 6.4)	173( 7.0)
무급가족종사자	37( 2.0)	71( 3.9)	26( 1.0)	41( 1.7)
전 체	1,838(100.0)	1,838(100.0)	2,477(100.0)	2,477(100.0)

자료 : 「전체 연결패널」

〈표 13〉 재취업시 종사상지위의 이행확률(1998.1~1999.6)

(단위 : %)

전종사상지위 \ 현종사상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1회	31.4	35.2	15.6	4.8	11.1
	반복	24.5	35.7	31.0	1.7	6.1	1.0
임시직	1회	4.9	61.2	21.1	2.0	7.2	3.5
	반복	4.3	55.4	32.8	0.3	5.9	1.2
일용직	1회	2.8	14.6	74.6	0.8	4.2	3.0
	반복	1.3	8.8	84.9	0.9	3.1	1.0
고용주	1회	3.2	9.7	8.1	45.2	32.3	1.6
	반복	2.5	5.0	33.8	40.0	15.0	3.8
자영자	1회	4.2	22.9	22.4	2.6	43.8	4.2
	반복	2.5	25.2	25.8	5.0	39.6	1.9
무급가족종사자	1회		18.9	13.5	8.1	16.2	43.2
	반복		38.5	11.5		7.7	42.3

자료 : 「전체 연결패널」.

## V. 맺음말

이상의 실업구조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실업발생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상태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이 수량적으로 매우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업경험자의 3분의 1은 단기간의 취업과 실업을 되풀이하는 반복실업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의 충격이 우리 나라에서는 연속적인 장기실업과 함께 반복실업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반복실업 경험자는 사실상의 장기실업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 실업 충격이 일부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의 빈번한 발생과 반복실업의 확대는 그 자체로 고용불안이나 고용의 질 악화, 실업 충격에의 지속적인 노출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반복실업의 확대는 근로빈민(working poor)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배제 집단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실업규모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을 통한 유연화'가 지속되는 한, 다소 정도의 약화는 있더라도 이러한 우려는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구조의 특징을 밝히기 위한 실증적 연구이므로, 정책적 방안의 모색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업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제도적인 사회적 보호 수준이 미약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Eatwell(1997)은 제도화된 사회안전망이 미약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스스로 취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처럼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노동수요의 감소는 실업의 증대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 부문에서의 고용의 증대로 나타나며,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의 증대는 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의 성격을 가진다고 그는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실업상태로부터의 탈출과 재취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실업 문제가 약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취업-실업(비경활)-재취업 간의 이동이 잦은 노동시장으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개선이 요청된다. 향후 실업구조 분석의 심화를 위해서는 실업상태뿐만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비취업(joblessness)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력상태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직장이동(job-to-job movement)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동태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김대일. 「실업 장기화의 효과 분석」. 『KDI정책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7.
- 김장호. 『여성실업의 구조와 행태 - 이행확률 추정을 통한 유량분석』. 한국노동연구원, 1998.
- 신동균.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a
- \_\_\_\_\_. 『1998년 노동력 이동동향』. 한국노동연구원, 1999b.
- 이병희. 「실업구조의 변화 - 고실업과 장기실업」.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9.
- \_\_\_\_\_. 「선진국의 노동시장구조와 노동시장제도」. 『산업노동연구』 제3권 제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1998.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Akerlof, G.A. and B.M. Main. "Unemployment Spells and Unemployment Experienc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0 no. 5. 1980.
- Barkume, A.J. and F.W. Horvath. "Using Gross Flows to Explore Movements in the Labor Force." *Monthly Labor Review*. April 1995.
- Benoit-Guilbot, O. and D. Gallie. *Long-term Unemployment*. Pinter Publishers, London, 1994.
- Eatwell, J. "Effective Demand and Disguised Unemployment." Michie, J. and J.G. Smith. *Employ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 Jobs, Inflation, and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 \_\_\_\_\_. "Current Statistics on Labour Dynamics." DEELSA/ELSA/WP7(99)3, 1999.
- \_\_\_\_\_. "Long-term Unemployment." *Employment Outlook*. 1987
- \_\_\_\_\_. "Moving In and Out of Unemployment : The Incidence and Patterns of Recurrent Unemployment in Selected OECD Countries." *Employment Outlook*. 1985.



abstract

---

## Recurrent Unemployment after the Economic Crisis

Lee, Byung Hee

This paper investigates why is the unemployment outflow rate into employment so high and why do the precarious workers have short unemployment spell after the economic crisis. Using the matched panel data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is paper points out that, in spite of the fact that most spells of unemployment are quite short, a very substantial portion of the unemployed experiences multiple unemployment spells over a period of time. Also recurrent unemployment leads to very long total durations of unemployment. This evidence implies recurrent unemployment is as important as long-term unemployment under the poor social safety net system.